

일본인의 2004년 독서실태

백원근 | 재단법인 한국출판연구소 선임연구원

성인 독서실태_ 메가 히트작 속출 불구하고 독서량은 감소

마이니치신문은 성인 4,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58회 독서세론조사> 결과를 지난 10월 26일 발표했다. 단행본과 문고판을 합한 일본인들의 월평균 독서량은 1.3권으로 작년보다 0.2권 줄었다. 주간지와 월간지를 합한 잡지 독서량 역시 0.3권이나 감소해 잡지시장 침체 현상이 독서실태 조사에서도 증명된 셈이다(<표 1> 참조).

구분	단행본	문고·신서	주간지	월간지	만화책
2004년	0.7	0.6	1.2	0.7	1.0
2003년	0.9	0.6	1.4	0.8	0.9

<표 1> 1개월 평균 독서량 (만 16세 이상 성인 대상, 단위 : 권)

기타 매체의 평일 기준 1일 접촉률과 접촉시간을 보면 신문이 접촉률 84퍼센트에 36분, TV가 95퍼센트에 2시간 59분으로 작년과 거의 유사했다. 선호하는 출판 장르(복수응답)에 대해서는 취미·스포츠, 건강·의료·복지, 일본소설, 생활·요리·육아, 논픽션 등이 상위권에 올라 실용서와 문예물 중심의 변치 않는 인기를 보여줬다. 특히 작년에 비해 실용서 전반의 선호도 증가가 특징적이다.

일본 출판계는 작년보다 속출하는 초대형 밀리언셀러들을 '메가 히트작'이라 부른다. 성인들이 이런 책들을 왜 읽었는지 우선 순위로 물었다. '화제작

이어서' (50퍼센트), '내용이 재미있어서' (37퍼센트), '제목이 좋아서' (19퍼센트), '간단히 읽을 수 있어서' (12퍼센트) 등의 응답이 나왔다. 화제가 되는 재미난 책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책을 구입하는 계기는(3순위까지 복수응답) 신문 등의 광고(34퍼센트), 책 제목이나 띠지를 보고(31퍼센트), 저자가 좋아서(29퍼센트), 신문 등의 서평을 읽고(22퍼센트) 순이었다. 여기에는 연령대별 차이가 존재한다. 영상매체 및 또래 집단에 의한 영향은 10,20대에서, 신문 등의 매체광고는 40대 이상에서 높게 나타났다. 베스트셀러 순위를 얼마나 의식하는지에 대해서는 25퍼센트(의식) 대 68퍼센트(비의식)로 의존율이 생각보다 높지는 않았다. 일본인 가운데 어학부터 관혼상제 예절까지 망라하는 각종 형태의 전자사전을 이용하는 비율은 19퍼센트였다. 직업별로는 학생이 47퍼센트로 가장 높다. 자주 이용하는 장르를 물어보니 국어(일본어), 외국어, 한자사전 등으로 나타났고, 향후 이용하고 싶은 분야로는 어학 이외에 가정의학 분야의 수요가 높았다. 아직까지 전자사전 이용 경험이 없는 사람들 가운데 앞으로 이용 의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비율은 각각 절반씩으로 나뉘었지만, 시장의 성장 잠재력은 충분하다는 통계치로 보인다.

재미있는 질문으로는 '공공도서관에서 베스트셀러를 복수로 대량 구입하는 현상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항목이 있다. 과반수인 54퍼센트가 바람직하다고 응답해, 출판·서점계와 도서관계에 설전이 오갔던 이 문제에 대해 국민들은 도서관계에 관정승을 선언했다.



사진은 기노쿠니아서점 본점의 전자사전 특별 전시 코너와 도쿄 전철역 지하도의 전자사전 광고.

이 글을 쓴 백원근은 현재 (재)한국출판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일본출판학회 정회원으로 일본 매스컴업계 주간지 <文化通信>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2002년 일본 문화청에서 주최한 <동아시아 출판문화 심포지엄>에 한국 대표로 참여했으며 펴낸 책으로는 번역서 <출판광고> 등이 있다.

초·중·고 학생 독서실태

책 독서량은 늘고 잡지는 줄어들어

일본 학생들의 독서율이 대폭 증가했다. 고등학생이 작년의 41퍼센트에서 올해 57퍼센트로 무려 16퍼센트 포인트나 증가한 것을 필두로, 중학생이 13퍼센트 포인트(68퍼센트 → 81퍼센트), 초등학생이 2퍼센트 포인트(91퍼센트 → 93퍼센트) 각각 증가했다. 1개월 평균 독서량 역시 작년에 비해 중·고등학생이 각각 0.5권씩 늘었다.(중 2.8권 → 3.3권, 고 1.3권 → 1.8권) 이는 중학생의 경우 지난 1957년 조사 이래, 고등학생은 1975년 이래의 최고 기록이라고 한다. 이러한 사실은 일본 <마이니치신문>이 전국학교도서관협의회와 협력해 실시한 제50회 학교독서조사 결과를 지난 10월 27일 발표하면서 밝혀졌다. 이 조사는 전국 114개교 1만1,179명의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학생들의 독서율 및 독서량 증가의 견인차로는 '아침 독서' 운동과 청소년 주인공이 등장하는 몇 종의 초대형 히트작이 꼽힌다. 전국 초·중·고의 45퍼센트에 해당하는 1만7,496개교에서 실시중인 학과수업 전 10분간 '아침 독서'는 독서량 증대의 지렛대로 작용했다. 아울러 321만 부가 판매되며 공전의 베스트셀러로 기록된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가타야마 코이치 지음)가 '지방도시에 사는 고등학교 2학년'을 주인공으로 삼은 점, 고교생들과 거의 같은 연배로 최연소 이쿠다가와(荊川)상을 수상한 가네하라 히토미(《뱀에게 피어싱》)와 와타야 리사(《발로 차주고 싶은 등짝》) 등의 영향도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고등학생들에게 '지난달 읽었던 책 제목'을 묻는 질문에서 《세상의...》가 성별 학년별 격차 없이 단연 1위에 올랐는데, 이는 2000년 조사의 《그러니까 당신도 살아》(오히라 미츠요 지음)에서도 나타난 현상이다.

잡지 매출 비중이 큰 일본 출판계 입장에서 큰 관심사인 학생들의 잡지 독서량은 점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 평균 읽은 잡지는 초등학생 4.2권(작년 4.8권), 중학생 4.0권(작년 4.3권), 고등학생 3.3권(작년 3.7권)으로 한결 같이 감소 경향이 두드러졌다. 학생들은 방과 후 여가시간을 동아리 활동, 보습 학원, 아르바이트 등으로 바쁘게 지내는데, 집에서는 전혀 공부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41퍼센트나 되었다. 인쇄매체(책, 잡지, 신문)를 읽는 시간은 초·중·고를 막론하고 '30분 이하'가 과반수를 넘겨, 다매체 시대임에도 인쇄매체 이용도가 우려스러울 만큼 줄지는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학생들이 여가시간에 컴퓨터 이용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약 70퍼센트(초 69퍼센트, 중 67퍼센트, 고 71퍼센트)로 나타난 점은 한국과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학생들은 어떤 기준으로 읽을 책을 고를까. 3순위까지 복수응답을 받은 결과 '제목, 표지, 인기도, 친구 추천, 영상물 원작' 등의 순으로 그 영향력이 평가되었다(〈표 2〉 참조). '선생님 추천'은 약효가 거의 없어 공통적이다.

기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비고
				(단순 평균)
책제목	62	47	39	49
표지	38	40	36	38
사회적 인기나 평판	18	38	46	34
친구 추천	26	28	32	29
영화·TV 원작	26	34	27	29
책값	18	23	23	21
좋아하는 작가	15	20	26	20
신문·잡지의 광고	6	9	16	10
책 크기 및 무게	14	8	5	9
활자 크기	14	7	5	9
가족 추천	11	5	3	6
선생님 추천	3	1	1	2
기타	15	13	11	13

〈표 2〉 학생들이 읽고 싶은 책을 고르는 선택 기준
(3순위까지 복수응답, 단위: %)

책을 읽은 다음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에 대한 질문도 관심을 끈다. 복수응답의 결과를 보면 초·중·고생의 약 절반이 독후감을 쓴 경험이 있으며(초 51퍼센트, 중 49퍼센트, 고 57퍼센트), '책 내용에 대해 친구와 이야기했다'(초 45퍼센트, 중 58퍼센트, 고 61퍼센트), '같은 작가의 다른 작품을 읽었다'(초 45퍼센트, 중 45퍼센트), '읽은 책을 친구에게 빌려줬다'(고 52퍼센트) 등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독서실태는 극소수 밀리언셀러의 시장 지배, 독자층의 양극화, 영상매체의 영향력 증대, 실용주의 노선, 독서량(정확히는 도서구입량) 감소 현상 등을 그대로 보여준다. 우리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책 읽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의 독서교육, 그리고 사회적 독서환경 조성과 '자극'이 관건이다. 울창한 독서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출판계의 지혜를 모을 때이다. 출판은 뿌리고 가꾼 만큼 거두는 농업이다. **한글**